

12월의 기도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장 10절)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용기 총재목사님께서 2013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3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6. 2013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영혼-육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순이, 김정환, 나인규, 박예림, 안희순, 오현주, 이규현, 이형춘, 임철규, 원소선, 정나숙, 조종숙목사님(순복음정릉교회) 핸드폰 *** **** 1875, Esther Han, Ryan Ahern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천국과 지옥

한 부인이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신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곧 너를 데려 가겠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있다.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놓고 와야지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너만 천국에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집안을 깨끗이 정리 정돈해라” 그래서 열심히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집안 정리정돈을 다 했으니까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천사가 다시 와서 “저 마당에 잡초가 저게 뭐냐? 마당에 잡초가 많아서 보기 흉하니 다른 사람이 이런 집에서 살려고 하겠느냐? 잡초를 정리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난 다음에 천국에 오너라” 그래서 열심히 정원을 가꿨습니다. 잡초를 뽑고 아름다운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정원을 돌보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 갈 때가 됐으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니 천사가 나타나서 “아직 멀었다. 네 집 주변을 봐라. 거지가 있는데 먹이지도 아니하고 입히지도 아니했지 않느냐? 이웃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느냐? 그것을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천국에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지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웃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남편과 자식들에게도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이제는 다 됐지요?”라고 하니 천사가 와서 그 부인의 손을 잡고 창문가에 나와서 창문을 활짝 열어 놓고 “바깥을 한번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보니까 정원에는 꽃이 만발하고 나비가 날고 새들이 노래하고 보는 사람마다 손을 흔들며 감사하고 남편도 우리 집사람이 제일이라고 하고 자식들도 우리 어머니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천국에 갈 필요 없이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천국은 좀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자기가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하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마가렛 코트 목사 (호주 빅토리 라이프 센터) 목회자가 된 테니스의 여왕 “하나님 말씀은 꿈과 믿음을 주십니다”



24개의 그랜드 슬램 단식 타이틀 획득, 복식과 혼합 복식을 포함한 그랜드 슬램 타이틀 총 62개. 4개 그랜드 슬램의 단식·복식·혼합복식에서 모두 우승하여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단연 역대 남녀 선수 중 최고의 기록을 남긴 마가렛 코트. 테니스 여왕 마가렛 코트는 1942년 호주 앨버리에서 가난한 가정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테니스 코트장 근처에서 살았지만 그저 먼발치에서만 바라봤던 테니스였다. 하지만 그녀는 테니스를 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어느날 그녀의 눈앞에 작은 꿈 조각이 나타났다. 망가진 테니스 라켓이 놓여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라켓에 스트링(줄)을 넣고 라켓을 고쳐 테니스장 담장 밖에서 눈으로 배운 동작으로 테니스 연습을 했다. 테니스장 밖에서 열심히 15세 소녀를 유심히 보던 코치는 그녀에게 테니스를 쳐보겠냐고 물었다. 조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때 소녀의 '에스'가 호주를 넘어 세계의 테니스 역사를 완전 바꿔놓았다. 1962년부터 1973년까지 마가렛 코트는 일곱 차례나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1960년

그녀는 첫 번째 메이저 챔피언십을 거머쥐었고, 마지막으로 1975년 U.S. 오픈에서 우승했다. 마가렛 코트는 1977년까지 경기를 지속했다. 1979년 선수 은퇴 하기 몇 년 전,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친구가 그녀에게 건네 준 한 권의 책 '4차원의 영성(조용기 목사 지음)'이 테니스의 여왕 마가렛 코트를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인도했다. 1990년 마가렛 코트는 마가렛 코트 사역 협회를 퍼스에 세웠다. 사회 구제를 통한 복음전파를 위함이었다. 사회활동과 구제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수백 명이 거듭나고 성령 침례를 받았다. 다음해 오순절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마가렛 코트는 1995년 빅토리 라이프 센터를 건립했다. 교회는 사랑과 자비, 동정이 있는 '자비의 배 (mercy ship)'로 알려지게 됐다. 주일 예배 참석자 수는 평균 2000명 이상이고 퍼스 도시의 가장 크고 역동적인 교회 중 하나로 성장했다. 또 2001년 5월 미국 오렐 로버츠 대학으로부터 명예 박사(법학 분야) 학위를 받았다. 이

는 목사로서 단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함이었다. 마가렛 코트 목사는 그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속 사역을 하고 있다. “저는 오랫동안 조용기 목사님의 책들과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는데 특히 믿음과 사랑의 단순함을 배웠다”고 말한 코트 목사는 현재 호주에서 동성애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용기에 대해 코트 목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 '2013 세계 지도자 컨퍼런스'가 9월 25~26일 호주 퍼스의 빅토리 라이프 센터(담임 마가렛 코트 목사)에서 '열방을 재정비하라'는 주제로 성대하게 열렸다. 조목사의 방문을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된 마가렛 코트 목사는 지난 10월 13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 4부 예배에서 조용기 목사의 초청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또한 마가렛 코트 목사는 2013년 CGI 이사회에서 신입이사진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함께해 나갈 예정이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세상에 살면서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은 참으로 괴롭고 힘이 듭니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없다는 것은 사실 진정한 만족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6•25전쟁을 겪은 세대는,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집도 먹을 것도 잡자리조차 없는 것은 정말 마음에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만일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되면 기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중에 제일 정성 들여 멋있게 지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 지은 사람은 보기에 좋고 같이 살기에도 좋은 존재가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불광동에서 산자락에 천막으로 교회를 지어 놓고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오탈 로버츠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God is good God).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부딪혀 왔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좋은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었습

플러스인생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6절>

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난하고 험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모셔 들이고 믿어보라.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목청 높여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선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보니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마음속의 나쁜 생각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좋은 일만 다가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진짜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 마이너스 인생을 가져온 마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이너스 인생을 가져오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훼방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도둑과 같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고 하시면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는 절대로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 되려는 인본주의에 서서 하나님과 경쟁하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원래 마귀는 하늘의 천사장으로 노래를 담당하는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부르게 했는데 그에게 교만이 들어가 하나님과 동등 되려하다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아담과 하와도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고 마귀의 유혹에 따라 허물진 삶을 살아 마음이 고통스럽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하지 못합니다. 또한 여자들은 어린 아기를 잉태하고 낳아 기르는데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병들고 고달프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실질적인 실존은 비참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하게 자랐다 할지라도 죄책의 절망은 벗어날 수 없고 마음에 죄책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와 무의미가 마음을 습격해 올 때 감당하지 못합니다. 젊고 생기발랄할 때는 인생이 즐겁다고 느끼며 즐겁게 살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갑자기 삶의 허무와 무의미가 마음을 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 희망을 플러스하는 복음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조그마한 통에 생쥐 세 마리를 넣고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만에 통을 열어보니 세 놈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통에 생쥐 세 마리를 넣고 바늘구멍만한 구멍을 뚫어 쥐서 햇빛이 비취게 해주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뚜껑을 열어보니 생쥐들이 모두 팔팔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쥐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아무 빛도 없는 캄캄한 통 안에서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구멍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희망을 갖게 되어 죽지 않았습니다. 생쥐도 빛이 있으면 살고 빛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사람도 희망이 있으면 살고 희망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악과 질병과 고통을 다 해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누구든지 낫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거듭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서 십자가에 밀려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산리기도원 추수감사 특별성회 개최

조용기 목사 '바라봄의 법칙' 선포



조용기 목사는 11월 15일 오산리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원장 국해현 목사)에서 열린 추수감사특별성회에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삶에 적용시키는 4차원의 영성에 대해 설교했다.

권용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에벤에셀 몸찬양단의 위습, 국해현 기도원장의 강사소개, 조용기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조용기 목사는 "예수님

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을 의지해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 들이고 인정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기로 역사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날마다 마귀를 쫓고 마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과 꿈을 채우라"며 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바라봄의 법칙을 선포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감사가 모든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멸한다"고 말했다.

성도들은 모든 말씀에 강력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했다.

1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이번 추수감사특별성회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기 위한 초교파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기도원에서는 하루 네 번의 예배를 진행했고 초교파 유명 강사진이 말씀을 선포했다.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DCEM 헌신예배 드려

꿈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되길 강조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추위도 순복음 성도들의 예배를 향한 열정은 막을 수 없었다. 11월 22일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담임 정재명 목사)에 금요철야예배 강사로 초청된 DCEM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시편

23:1~6)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는 설교 전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자여' 찬양을 부르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말씀을 통해 인생의 나침반이자

항해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인생의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번 DCEM 헌신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 선교 사역에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할 뜻을 고무시키게 되었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최근에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와 성북구청은 최소 비용으로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복지에도 함께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